+

북구, 탄소중립 달성·기후위기 극복 '박차'

평두메습지 생태학교・실천가게 선정 등 신규 시책 추진 내달 '탄소중립 녹색성장' 비전선포식…정비사업도 계속

광주 북구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역점 시책 추진에 박 차를 가한다.

19일 북구에 따르면 다가올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'평두메 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 운영'과 '탄 소중립 실천가게 선정 및 지원' 등의 주민 참여형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

또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 로 선포하는 '녹색 성장 비전선포식'도 개최할 계획이다.

2월 중 진행될 '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'는 국내 26번째이자 광주 최

초의 람사르습지인 평두메습지의 생태 적 가치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 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 경교육이다.

교육 중 북구는 자연의 탄소 저장원 역할을 하는 평두메습지 탐사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 대 응하고 습지 보존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할계획이다.

탄소중립 실천가게는 기후변화의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.

선정된 사업장엔 탄소중립 분야 전문 가인 '탄소코디네이터'가 방문해 에너 지 사용 절약 교육과 일회용품 사용 저 감 안내 등 탄소중립 실천 컨설팅을 제 공한다.

북구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온 실가스 배출 감소와 탄소중립 실천 분 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게 선정 및 지원 등의 사업을 3월 중 추진할 계획 이다.

2월 중 예정인 '탄소중립 녹색성장' 비전선포식에서 북구는 관련 기본계획

을 공유하고 비전을 선포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 로 선언할 방침이다.

'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'은 2045 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북구의 비 전과 목표,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전략 이 담긴 장기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1 월 2045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받았다.

북구는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환경부에 제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첫 발걸음을 뗄 예정이다.

이 밖에도 북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빈틈없이 예방하고자 침수 취 약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재해 위험 정비사업도 단계별로 지속 추진

문인 북구청장은 "최근 발생한 LA 산불처럼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피해에 고통받고 있다"라며 "기 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상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 /안재영기자

서구 '창업지원사업 합격의 정석' 50여명에 전문가 1대1 멘토링 진행

광주 서구는 "최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'창업지원사업 합격의 정 석'을개최했다"고19일밝혔다. 〈사진〉 '창업지원사업 합격의 정석' 행사에 는 관내 초기 창업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심

검토와 1대1 멘토링이 진행됐다. 이번 행사 외에도 서구는 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가들에게 입주 공간 지원과 맞춤형 멘토링 등 종합적

사위원을 역임한 전문가의 사업계획서

특히 지난해에는 '청년점포임대료 지원사업'을 통해 창업 초기 비용 지원 과 더불어 외식업 창업을 돕는 '청년외 식창업 아카데미'를 진행했다.

인 창업 지원을 제공했다.

'명장성공스쿨'에선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가 된 대한민국 명장 안유 성 대표(가매일식)와 제과제빵 분야의 명장 마옥천 대표(베비에르)가 직접 강연에 나서 창업 기술과 레시피를 전 수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.

서구 관계자는 "앞으로도 혁신적 인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"이라며 "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 창업가 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 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"고 밝 혔다. /주성학기자





동구,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 임택동구청장이 지난 17일 동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신규위 원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. 〈광주동구 제공〉

+

광산구 "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조성"

시민 참여 · 연대 강화…상향식 사회적 대화 진행도

광주 광산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·연대 강화 에 나선다.

광산구는 "최근 구청 2층 상황실에 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민생 안 정과 지속 가능한 도시 도약을 위한 주 요시책을 발표했다"고 19일 밝혔다.

박병규 광산구청장은 "시민이 주권 자로 서는 민주주의가 민생이고 혁신 이다"며 "구의 권한과 자원을 나눠 분 산·견제·균형으로 구현하는 광산형 자 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고 전파해 대한

는데 이바지하겠다"고 강조했다.

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속 가능 일자 리 특구 설계를 위한 '상향식 사회적 대 화'를 진행한다.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 체제를 5국 1소에서 7국 1소로 개 편하고 기획력과 기동성, 책임성, 전문 성을 높인다.

앞서 광산구는 시민 자치 역량을 키 선에 나선다. 우고 결집하는 일에 집중해 정부와 기 관의 413개 공모·평가에 선정돼 상사업 비 666억원을 확보했다.

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든든히 다지 에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"며

"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중심에는 주권자인 시민이 있어야한다"고 강조했다.

시민 참여·연대 강화 외에도 광산구 는 올해 ▲자치행정 ▲경제 ▲복지 ▲ 문화·교육 ▲안전·도시·보건 ▲환경· 생태 등 6대 분야에 주력하며, 지역 현 안 중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해서 는 지자체와 연대를 추진, 보상 기준 개

박 청장은 "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해 정치에 머문 민주주의를 경 박 청장은 "시민의 연대와 참여 덕분 제로 넓혀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체계 를만들겠다"고다짐했다. /이옥근기자

동구 "올해의 책 추천하세요"

내달 7일까지 설문…10권 선정 문화사업 연계

광주 동구는 19일 "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'올해의 책' 후보도서 추천 설

'올해의 책'은 유아·어린이·청소년· 성인 등 각 부문으로 선정된 도서를 지 역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문 화행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독 서 문화 사업이다.

문조사를 실시한다"고 밝혔다.

설문 참여는 동구 누리집과 모바일 앱 '두드림'과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서 도 가능하다. 참여자는 함께 읽고 싶은 도서명과 추천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.

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1차 후보도서 추천을 마친 후 도서 선정단의 검토와

주민 선호도 투표를 거쳐 '올해의 책' 총 10권이 최종 선정된다.

선정된 '올해의 책'은 주민들의 독서 문화 향유를 위해 지역책방 연계 도서 지원사업과 독서문화프로그램에 활용

동구는 올해의 책 선정 후 작은도서 관과 마을사랑채 등 인문거점 시설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할 계획이다.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 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의 장과 책을 매게로 한 정 책 수립까지 이어지도록 소통 창구를 강화할 방침이다. /안재영기자

남구, 로컬푸드 직매장에 '청소년 공간' 추진

오는 5월 개장···노래방·북카페 등 조성 예정

광주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에 각종 놀이시설을 갖춘 청소년 자율공간이 들어선다.

19일 남구에 따르면 실내 전용 면적 1 11㎡로 예정된 자율공간은 방과 후 청 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하며 여가 활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예정이다. 위해 조성된다.

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해 효덕초등 트를 펼쳐 놓은 캠핑장도 조성된다. 학교와 진남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학생들이 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즐거운 휴 하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다.

공사는 오는 2-4월 진행되며, 개방 시 기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사업비

는 3억7천만원이 투입된다.

내부는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 있는 시설로 채워진다. ▲북카페 ▲코인 노 래방 ▲인생네컷 사진 부스 ▲닌텐도 등을 포함한 게임존과 PC존, 앉아서 대 화를 나눌 수 있는 다락방 등이 들어설

또 야외테라스는 인조 잔디 위에 텐

남구 관계자는 "방과 후 청소년들이 식 시간을 가지면서 여가 활동도 활발 하게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/주성학기자



